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20년

## 온라인 모의논술 문제지(인문계열)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성 명 :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OMR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불가)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한국에 온 지 이태\*가 되어서야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는 프영 씨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호찌민, 버스, 여덟 시간, 까마우, 더워

공부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읽을 수 있는 단어는 열 개 남짓  
하지만 모르는 게 없는 생선 이름들

오늘은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서  
생선 장사를 거뜬히 해냈다고

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희미하게 퍼지고  
프영 씨는 발개진 얼굴로 또 미안해한다

가만있자, 프영은  
하노이의 오월을 붉게 물들이는 꽃 이름이 아닌가

종일 고단했는지 붉은 꽃이 깜박

때마침 함박눈이 내려서  
딸 이름 설화가 바로 저 눈꽃이라고 일러 준다

방 안에 붉은 꽃, 흰 꽃  
두 송이 시들지 않는 꽃이 활짝  
(김선향, <붉은 꽃, 흰 꽃>)

\*이태 : 두 해

-『고등학교 문학』

**【나】** 레비나스는 '차이와 타자성'의 개념을 통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성애 근거한 동일성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것을 일종의 폭력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타자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통해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변순용, 『타자의 윤리학』)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부터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의 2.3%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2016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3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 내에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 태도가 부족한 수준이며,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편이다. 또한 외국인 혐오의 양상에는 인종에 따른 차별적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 백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동남아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사회 . 문화』

**【라】**

경기도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은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약 50여 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이다. 또 1976년 서울 이태원에 자리한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의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 경남 김해의 구도심인 동상동은 경남의 이태원이라 불릴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찾는 곳으로, 쇠락하던 전통 시장이 이들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다문화'는 대중문화에서도 하나의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독립영화, 상업 영화의 소재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영화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풀어내는 시선도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로만 그린데 반해 최근에는 우리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문제1]**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즉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가 다문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와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라】를 참고하여 최소 3가지 쓰고,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다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제시글 전체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유의 사항>

· 다문화 수용 태도와 관련한 서술에서는 제시글의 핵심어를 포함시켜 서술하기 바랍니다.

<12 ~ 14줄 (360 ~ 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청년 실업의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수저' 부모 덕택에 좋은 직장을 쉽게 잡는 취업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다. (.....) 이것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자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관행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낀다. 취업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고등학교 문학』

**【다】**애초에 출발점이 다르다면 그 경기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롤스는 말한 다.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인 것, 즉 행운의 요소를 통해 이익이 분배되면 안 되는 것이다.

롤스는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여겨야 하며,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이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그는 개인이 정당한 취득과 양도의 과정을 거쳐 얻게 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며 소유물의 처분도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노직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일정시간 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노동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시간만큼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나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기회와 권리를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국가론을 제시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국가 체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2] [가]와 [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보여주며, [다]~[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다. [다] 입장을 통해 [가]와 [나]의 내용을 평가하고 [라]의 정의론을 비판하거나, [라]의 입장을 통해 [가]와 [나]의 내용을 평가하고 [다]의 정의론을 비판해 보시오.

<유의 사항>

- 문제의 두 입장 중, 수험생이 지지하는 입장을 하나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12 ~ 14줄 (360 ~ 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들은 공익의 증진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보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편익이라고 한다. 편익은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얻는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빵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

만약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한 대안들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들어간 비용, 즉 선택을 위해 직접 지불한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 한편 화폐로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비용과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을 합친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다】** 경제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세계를 무대로 하여 판매 및 생산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노동, 기술, 경영 등 생산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관리, 연구, 생산 기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를 공간적 분업이라고 한다. (.....)

경제 세계화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커지기도 한다. 국가 간 무역에서 선진국은 주로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과 금융 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개발 도상국은 주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문을 담당하면서, 이들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라]**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무역 형태를 공정 무역이라고 한다. 공정 무역은 다국적 기업 등이 자유 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몫을 분배받지 못하여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하는 등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하여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에게 합당한 이윤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또한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추구하며, 아동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정 무역은 정의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확보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전한다는 윤리 가치를 지향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3] [다]는 [가]와 [나]에서 제시된 원리를 추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라]는 [다]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 논술을 작성하시오.

(1) [다]의 현실에 [가]와 [나]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2) [가]와 [나]의 논리가 [라]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5 ~ 20줄 (700 ~ 800자)> [40점]